루이스 바라간 주택공간에 나타난 빛과 건축공간요소의 상관적 표현 특성**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 Representation of Light and Architectural Space Elements in Luis Barragan's Houses

Author

김지은 Kim, Ji-Eun / 정회원,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이정욱 Lee, Jung-Wook / 명예회장,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Luis Barragan is a representative Mexican architect. He designed architectural space as a local architect in consideration of the Mexico's harsh Mediterranean climate. His manifestation of the regionality can be found mainly in his precise expression of light. Such method and concept of using light in Barragan's architecture made a huge impact on later architects but detailed studies on this issue have not been made actively. Hence, this paper intended to suggest a starting point or an orientation by illustrating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and expressing light in architecture through his cases of housing works. The study method was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ght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elements of architectural space that dealt with li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ng light shown in the architectural space. Second, the architectural background of Luis Barragan and the architectural space elements of the light expressed in his architectural space were extracted to form a hypothetical ground. Third, five of his works on the houses in his prime (after the year of 1945)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 representation between light and the architectural space elements in his architecture. Through this process, it was learned that, in his architectural works, light was the embodiment of the location-related, time-based, daily and illusionary experience into architecture. In addition, meditative light could be experienced by contrasting the soft and dispersed light and shadow of the inside space of Barragan's houses with the strong external light. Therefore, through the process above, this study is hope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contemporary architects of our era to rethink the fundamental correl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light.

Keywords

루이스 바라간, 빛과 그림자, 건축공간요소

Luis Barragan, Light and Shadow, Architectural-Space-Elem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에서의 빛은 건축공간요소로 여겨질 만큼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전시대 양식주의 건축에서의 빛은 신과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건축 자체의 본질과 연관성을 두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I. Kahn)은

그의 책¹⁾을 통하여 빛은 모든 존재의 증여자이며 구조의 조형에 기여한다고 서술하며 구조와 빛을 동일체로 바라보는 그의 건축 철학을 언급했다. 또한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그가 서술한 책을 통해²⁾ 공간에서 빛의 존재 유무와 그에 따른 명암의 대조, 조화를 언급하고 그들과 그림자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빛과 그림자가 공간에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과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를 지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에 들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로서의 빛은 시대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ee4good@gmail.com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가천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John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침묵과 빛, 김경준 역, Spacetime, 2005, p.96

2) 다니자키 준이치로, 음예공간 예찬, 고운기 역, 발언, 1997, pp.24-25

다른 빛의 개념 변화를 통해 건축공간요소와 상관적 관계를 맺는 주요 건축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축 설계를 진행할 때, 건축가들은 다른 요소보다도 건축공간에 빛을 담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³⁾ 이는 빛이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다른 건축공간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만큼 건축에서 빛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건축가들은 대개의 경우 빛을 내부로 끌어오기 위해서 몇 가지 건축적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먼저, 빛의 일반적 특성과 장소적 특수성을 그들 고유의 시선(건축가의 의도)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그들의 언어(건축공간요소)를 통해 그들의 표현(건축 공간)을 하게 되며 이러한 건축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을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표 1>

<표 1> 빛이 건축공간에 표현되는 과정 도식화

빛	해석	표현	경험
⇒ 건축가	⇒ 건축공간요소	⇒ 건축 공간	⇒ 사용자

본 연구에서 멕시코의 근대 건축 거장인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을 선정한 이유로는 첫 번째, 그가 지역주의 작가로써 멕시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빛에 비중을 두고 설계한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조적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과도기적 시대에 활동한 건축가로서 국제주의를 거쳐 자신만의 건축관을 확립했다는 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빛을 고도로 정밀하게 구사하고 그 방법과 개념을 발전시킨 건축가로서 많은 근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룬 빛의 개념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되고 논리적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하여 루이스 바라간의 전성기의 주택작품⁴⁾을 중심으로 빛과 건축공간요소의 상관적 표현 특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빛이라는 개념이 루이스 바라간의 해석을 통하여 건축공간요소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표현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건축공간과 빛의 상관적 관계에 대한 기준점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3) 페터 Zumthor(Peter Zumthor)는 '건축을 생각하다'(THINKING ARCHITECTURE)라는 책을 통해 "나는 빛에 감동하며 빛에게서 배운다. 나는 공간, 소재, 질감, 색깔, 표면, 형태에 태양광선이 들어오게 한다. 그 빛을 포착하고 반사하고 여과하고 차단하며 적절한 지점에 빛이 나도록 조정한다."라고 서술하며 건축과 건축공간 요소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그의 공간에서 빛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4) 여기에서 그의 전성기 작품은 1945년 이후부터 그가 생을 마감한 1981년까지의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시기(초기 과달라하라시기, 이성주의시기)와는 180도 다른 건축관을 구축한다. 또 그의 많은 작품들 중 주택을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주택은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고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이며 특히 바라간 주택에서는 그가 추구했던 감성건축, 평온의 키워드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의 건축관이 확립된 1945년 이후의 주택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 루이스 바라간의 전성기 주택 작품을 통하여 그가 빛을 어떤 건축적 요소를 통하여 표현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빛과 건축공간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빛과 건축공간요소에 대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빛을 다루는 건축공간요소를 정리한 후 그것이 건축공간에서 나타나는 표현특성을 정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건축과 루이스 바라간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건축적 배경과 건축공간에서 사용된 빛의 장치요소를 추출하는 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추출된 개념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며 그의 전성기(1945년 이후) 주택 작품 5개⁵⁾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5장에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2. 빛과 건축공간요소 고찰

2.1. 빛을 다루는 건축공간요소

(1) 구조적 요소

"구조란 빛 속에서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볼트, 돔, 아치, 원기둥은 모두 빛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자연의 빛은 공간에 들어와 공간을 바꿀 때, 그 자연의 빛은 하루와 계절 속에서 미묘한 차이로 공간에 분위기를 만들어낸다."⁶⁾ 라는 루이스 칸의 말처럼 구조는 빛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의 요소이며 구조와 빛은 함께 연결된 유기체로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가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구조를 선택하고 그 구조는 빛을 선택적으로 공간에 유입시키게 되면서 어떤 향(向)에 놓여 있는지, 어느 위치에 어떠한 크기의 형태로 비어져 있는지에 따라 공간의 성격을 바꾸게 된다. 이처럼 빛은 건축 내부 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구조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반대로 차단되기도 한다.<그림 1>

<그림 1> 생 드니 수도원 교회 내부(고딕 양식)

(2) 비구조적 요소

건축에 있어서 빛을 다루는 건축공간요소에는 구조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료, 색채 등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우리가 공간이라는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료에 의해 구

5) <http://www.barragan-foundation.org/>

6) 임재명, 스티븐 홀의 건축에 나타난 빛의 유입에 따른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대 석사논문, 2010, p.15에서 재인용

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색채는 건물의 성격을 강조하고 그 형태와 재료를 돋보이게 하며 또한 구분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지역의 특수한 기후와 배경을 통해 특수한 지역적인 색을 사용하여 색채와 빛의 관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⁷⁾

이러한 색채를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스티븐 홀(Steven Holl)을 들 수 있다. 스티븐 홀의 시애틀 대학의 채플(The Chapel of St. Ignatius in Seattle University) 작품에서 보여지듯 창 안쪽에 색이 칠해진 벽을 두어 산란하는 반사 빛에 의해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내고 있다. 이것은 색채를 이용하여 예배당이라는 건물의 성격을 신비한 빛을 통해 강조하여 공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3>

<그림 2>
The Chapel of St.
Ignatius (1997)

<그림 3>
a. 색채 / a'. 빛에
의해 반사된 색채

2.2. 건축 공간에서 빛의 표현특성

(1) 장소적 측면

각각의 장소는 자신만의 환경을 구축하고 빛은 그 구축 과정에서 넓은 범위를 지닌 요소로서 장소에 고유한 특질을 부여한다.⁸⁾ 이것은 특히 지역주의 건축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로 알바 알토(Alvar Aalto)를 들 수 있다. 그가 설계한 보크세니스카의 교회(Vokseniska Church, Finland, 1956)에서는 핀란드의 온화하지만 일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0여개의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창을 이용하여 시간별, 계절별 북부 특유의 지역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의식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종묘를 들 수 있다. 종묘는 조선 설립과 동시에 통치 이념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숭배의 의미로써 지어진 왕실사당이다. 현재까지도 제례행사가 진행되는 이곳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공간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가로로 쭉 뻗은 지붕 선 아래 깊은 처마와 일렬로 세워진 열주로 인해 그늘진 정전은 죽은이들의 공간이고, 그 앞에 놓여진 드넓고 열린 공간은 제례를 진행하는 산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빛이 쏟아지

는 밝은 톤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과거 우리의 전통 건축공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죽은이와 산자의 공간에 사용되는 빛의 표현 특성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공간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측면으로서 지리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가 중요하며, 단순히 건축 설계 단계에서만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

(2) 시간적 측면

건축요소로서 시간이 공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빛이다. 빛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변화하는 유일한 요소로 태양의 일주운동에 의해 매일 변화하며 연속적인 낮과 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빛의 가변성과 연속성은 한국의 전통 공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선집의 처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처마는 방과 마루에 햇빛을 들이기도 하고 막을 수도 있도록, 태양 각도에 따라 계산된 길이로 만들어졌다. 각도가 낮은 겨울의 태양은 방 안 깊숙이 햇빛이 들이지만, 각도가 높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은 정확히 마루 끝에서 차단된다. 그 밖에도 깊은 처마는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 대청 같은 반 외부공간에는 열은 반간접 조명효과를 주고, 안방의 깊은 내부 공간에는 봉창을 통해 허용된 희미한 간접조명이 휴식과 취침에 적당한 정도로 조절된다.⁹⁾ 여기에서 마당과 건축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마루는 멕시코의 전통 양식인 파티오(patio)와 유사한데, 이것은 정원과 건축 사이에 존재하며 빛의 변화에 따라 공간 내부에 빛을 조절하고 사람들에게 쉼터로써 작용한다.

(3) 일상적 측면

일상적 측면에서의 표현적 특징으로는 반복성과 친숙성을 들 수 있다. ‘일상’이라는 개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¹⁰⁾’로 반복성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한자는 ‘日常’으로 한자의 의미로 볼 때 원래 태양이 뜨고 지는 항상성의 의미로 빛에 의한 반복성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빛이란 우리의 주변에 당연하듯 존재하며 우리의 일상을 함께한다. 해가 뜨는 아침부터 지는 저녁까지 끊임 없이 움직이며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하고 생명력을 부여한다. 우리는 빛이라는 요소를 통해 나만의 공간, 익숙한 공간,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안정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4) 환영적 측면

빛은 단일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환영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건축공간요소인 물이나 거울, 유리 와 같은 재료나 색채와 결합하여 투과하거나 반사, 재반사, 톤의 변화 등의 방법으로 본래 재료가 갖는 물성적 성질에

7) 이은미, 현대 건축공간에 있어 빛의 표현특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 논문, 2003, p.54

8) Ibid., p.23

9) 김원, 건축은 예술인가, 열화당, 2007.12, p.132

10)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147800>

반하는 효과를 창출하여 사람들에게 색다른 공간을 선사한다. 이것은 반사하는 빛의 효과를 통해 실존하는 공간과 허상의 공간 간의 경계를 지우는 듯 투명한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작가로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은 비물질성을 띠는 ‘빛’을 물리적 존재로서 경험하도록 작품에 담은 작가로 공간과 빛, 색채와 결합하여 초 자연적인 빛의 효과를 경험하게¹¹⁾ 하고 환영적 공간을 제시한다. 공간에서 산란되는 빛은 바닥, 벽, 천장의 경계를 허물어 마치 모든 요소, 사람까지 부유하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다.

<표 2> 빛의 표현 특성 어휘 정리표

표현 특성	내 용
장소적	지역성 기후나 계절 등과 같은 그 지역 고유의 빛의 특성
	역사성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 온 빛을 다루는 방법과 생각
시간적	가변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빛의 가변적 속성
	연속성 시간을 따라 지속적으로 흐르는 빛의 속성
일상적	반복성 계절, 하루와 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빛의 특성
	친숙성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여 익숙해지는 빛의 특성
환영적	부유성 산란된 빛에 의해 시각적 매스감이 상실되고 공간이 균질한 상태로 부유하는 것 같은 효과
	투명성 반사하는 빛의 효과를 통해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지우는 듯 보이는 빛의 특성

3.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 특성

3.1.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적 배경

1902년 멕시코¹²⁾의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Guadalajara)의 부유한 카톨릭 집안의 셋째로 태어난 루이스 바라간은 1923년 과달라하라 공업자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스승 바사브(Agustin Basave)의 영향으로 민족성과 시대 그리고 멕시코의 환경을 반영하는 건축관을 확립하였다. 1924년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첫 번째 유럽여행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돌며 아르테코 전시회(Exposition des Arts Decoratifs)에서 페르디난드 막(Ferdinand Mac)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를 통해 정원 디자인과 지중해 문화를 접하게 된다. 1927년 Robles Leon House란 첫 작품을 끝내고 그는 1932년 2차 여행에서 뉴욕에서 만난 오로스코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통해 벽화전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전통이란 근대를 통한 진정한 변용’이란 개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¹³⁾ 같은 해에 1차 여행 이후 2번째 접하게 된 르 코르뷔제(Le Corbusier)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제주의적 성향을 띤 그의 건축관을 받아들여 이러한 경향을 띤 아파트들을 대량 생산하였다.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건축이 자신이 추구하던 멕시

코의 장소성과 민족성과 맞지 않음을 느끼고 돌연 1940년 은퇴 선언을 하였다. 이후 1945년 빠드레갈(EI Pedregal)정원 설계로 재기하며 그의 전성기를 맞게 되면서 국제주의와 지역주의의 충돌을 해소하고, 영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담아 내면서¹⁴⁾ 그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정착하고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3.2. 루이스 바라간의 빛을 다루는 건축공간요소

(1) 구조적 측면

그의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벽(wall)은 그가 추구했던 반쯤 걸려진 빛(Half-Light)¹⁵⁾을 표현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 멕시코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두꺼운 벽¹⁶⁾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공간에서 극적인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강렬한 지중해성 기후의 빛을 내부로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창문 밖에 벽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커(layer)를 덩어로서 빛을 차단, 분절, 산란 시켜 빛을 걸러내었다. 벽을 통해 들어오는 2차적인 빛은 루이스 바라간 공간에서 나타나는 부유하는 빛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멋진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또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하는 벽의 커(layer)는 공간에 있어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 톤의 변화를 주어 공간의 깊이감을 창출하고 볼륨(volume)감을 줌으로서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

이 같은 벽에 한 부분을 덜어내 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로는 창(window)과 개구부(opening)가 있다. 이러한 건축공간요소는 빛의 유입뿐만 아니라 공간의 연속성, 환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루이스 바라간은 창과 개구부를 공간에 둘 때, 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를 두어 시간에 따라 강하게 내려찍는 빛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격자무늬의 창과 분절된 여단이 창이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격자무늬 창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의해 분절된 빛이, 여단이 창은 공간에 들어오는 빛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간의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배려했다.<그림 4, 5>

<그림 4> 격자무늬 창

<그림 5> 여단이 창

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7689&cid=3001&categoryId=3027>
 12) 멕시코의 정식 국명은 멕시코 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으로 중부 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저지대는 고온다습, 고지대는 온난하며 수도인 멕시코 시티는 연중 온난하며 북위 19° 26' 00", 서경 99° 08' 00"에 위치하고 있다.
 13) 송영주·이영수,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01.6, p.363

14) Ibid., p.363
 15) 한지애·김수미·심우갑, 정서구현으로 본 루이스 바라간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2호, 2011.12 p.205
 16) 이러한 강렬한 태양에 의해 발달된 또 하나는 두꺼운 벽체이다. 온도가 높은 멕시코의 건축은 벽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높고 두꺼운 벽체를 사용하여 외부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빛 하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그림자이다. “존재의 증여자인 빛은 그 존재의 그림자를 만든다. 이 그림자는 빛에 속한다.¹⁷⁾”라고 말한 루이스 칸처럼 그림자는 빛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림자를 통해 빛에 대해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건축 내부에서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빛)과 어두운 부분(그림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공간에 입체감을 더 부여하고, 빛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루이스 바라간이 주택 공간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높은 벽, 두꺼운 벽체, 파티오(patio)¹⁸⁾ 등 깊고 어둡게 지는 그림자는 빛을 시각적 가시화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그림 6>

<그림 6> Galvez House 창문에서 보여주는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

(2) 비구조적 측면

그의 건축 공간에서는 그림이나 구 형태의 오브제, 향아리 등의 여러 가지 오브제가 존재한다. 그 중 그림이나 구는 공간에 존재하는 빛을 머금으며 사방으로 발산시키는데 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로 빛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동시에 공간 모두를 담아 놓은 것이 시간을 머금은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그림 7, 8>

<그림 7> 오브제 - 구

<그림 8> 오브제-그림

또한 멕시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잘 나타나는 색채¹⁹⁾가 그 중 하나이다. 원색적인 색채는 빛을 받는 부

17) John Lobell, op. cit., p.62

18) 파티오(patio)라는 건축공간요소는 스페인이 멕시코를 식민지화 한 뒤 이 두 나라에 이슬람 풍의 파티오가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멕시코 주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의 강렬한 태양의 나라 멕시코의 주택에 시원한 휴식처로서 그 근간을 이루게 된다.

19) 전성기 이후의 정제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으로는 가정 먼저 색채를 들 수 있다. 지리와 기후에 의한 강렬한 색채는 근본적으로 멕시코의 스페인 침략 이후의 성향된 것으로 분석된다. 1519년 이후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하에 수입된 교회의 벽화나 장식 등을 통하여 전통의 강렬한 색채를 물려받은 멕시코는 이후 그들

분과 받지 않는 부분에 톤 대비를 더욱 뚜렷하게 하여 빛의 존재를 드러낸다. 또한 다른 각도의 위치에 따라 같은 색임에도 톤 대비를 이뤄 공간감을 극대화 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색채는 단순히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주변에 존재하는 나무나 꽃인 자연의 색으로부터 기여된 것으로 관계성을 알 수 있다.

그의 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이다. 루이스 바라간이 설계한 많은 건축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요소는 반사되고 간접적인 빛을 들일 때와 비슷하게 물의 표면에 의해 산란되는 빛에 의해 투명한 느낌의 환영적 공간을 창출해낸다. 물은 자체적인 표현적 요소가 있지만 다른 건축공간요소와 결합하여 또 다른 시각적 현상과 감각적 체험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4. 루이스 바라간 주택 공간의 빛 특성 분석

4.1. 작품 분석

(1) 선정된 작품

분석사례는 그의 전성기인 1945년 이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이며, 주택작품 5개를 선정하여 진행할 것이다.

<표 3> 분석 사례 목록

	작품명	연도	위치
1	Barragan House	1947	Tacubaya, Mexico city
2	Prieto Lopez House	1950	El Pedregal, San Angel, Mexico city
3	Galvez House	1955	San Angel, Mexico city
4	San Cristobal House	1966	Los Clubes, Mexico city
5	Gilardi House	1975	Tacubaya, Mexico city

(2) 분석의 틀

가장 먼저 4장에서 추출된 각각의 건축공간요소를 중심으로, 루이스 바라간 주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주택 공간에 나타나는 건축공간요소 ‘이미지’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정리’를 통해 도식화된 요소를 제시한다. 그 다음 2장에서 정리한 ‘표현특성’을 토대로 수치를 표기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건축공간요소와 빛의 표현적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3) 작품 분석

1) 구조적 요소 분석

루이스 바라간 작품에 나타난 구조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4, 5, 6>과 같다.

만의 원색적인 감각으로 색채를 발견 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근원을 기반으로 멕시코의 전통적 색채를 습득해 왔던 루이스 바라간은 많은 작품에서 이것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진행했다.

<표 4> 벽(wall) 사례분석표

벽(wall)								
이미지								
	Galvez House		Barragan House		San Cristobal House			
이미지								
정리								
표현특성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영적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친숙성	부유성	투명성
	●	◎	●	◎	X	○	X	X
<div>無 小 多</div> <div>X ○ ◎ ● ●</div>								

바라간은 강렬한 빛의 지중해성 기후인 멕시코의 지역적 영향으로, 두껍고 높은 벽을 사용하여 빛을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벽에 떨어지는 빛은 해의 이동에 따라 그림자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보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공간에서 빛에 의한 가변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그는 창문 외부에 높은 벽을 둠으로써 빛이 벽에 부딪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시간에 따라 빛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내부로 유입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앞서 설명한 스티븐 홀의 방식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스티븐 홀은 공간 내부에 벽을 둠으로써 빛을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고 유입되는 빛의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표 5> 창문(window) 사례분석표

창문(window)								
이미지								
	Prieto Lopez House		Galvez House		Barragan House			
이미지								
정리								
표현특성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영적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친숙성	부유성	투명성
	●	◎	●	◎	◎	○	X	X
<div>無 小 多</div> <div>X ○ ◎ ● ●</div>								

바라간은 지중해의 강렬한 빛을 내부에 효과적으로 들이기

위해 격자무늬의 창, 혹은 여단이 창을 통해 빛을 조절하는 요소를 사용했다. 격자무늬의 창은 빛을 분절시켜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편의를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분할된 여단이 창을 시간마다 빛을 조절하도록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여 시간마다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변화의 요소로 풀어내었다. 또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면서 공간의 톤을 느끼고 연속적이게 변화시키며 공간을 다양하게 느끼도록 한다.

<표 6> 개구부(opening) 사례분석표

개구부(opening)								
이미지								
	Prieto Lopez House		Barragan House		Prieto Lopez House			
이미지								
정리								
표현특성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영적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친숙성	부유성	투명성
	○	○	◎	◎	X	○	●	◎
<div>無 小 多</div> <div>X ○ ◎ ● ●</div>								

바라간은 창만큼이나 개구부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 천장에 개구부를 사용하여 종교적인 신비로운 공간으로 사용했다. 주택 곳곳에 있는 개구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빛은 공간에 포인트이자 영역적이고 신비스러운 공간이 된다. 이러한 빛은 산란되는 빛의 부유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간이 자신만의 영역적 공간과 떠있는 듯한 환영적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벽이라는 요소의 부분을 덜어내는 개념으로의 개구부는 앞선 분석한 창과 같이 빛을 공간 내부로 받아들이는 장치로써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2) 비구조적 요소 분석

루이스 바라간 작품에 나타난 비구조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7, 8, 9>와 같다.

<표 7> 오브제(object) 사례분석표

오브제(object)								
이미지								
	Prieto Lopez House		Galvez House		Barragan House			

이
미
지

정
리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경적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친숙성	부유성	투명성
X	X	●	◎	◎	◎	●	◎

無

小

多

x

○

◎

●

●

바라간 건축 공간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오브제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 반사 재질의 오브제는 빛을 산란시켜 부서진 빛 입자들이 공간에서 환영적 부유성을 나타낸다. 또한, 빛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며 빛을 발산, 흡수 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오브제를 공간에 두어 친숙함을 느낄 수 있지만 계절이나 시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바꾸기도 하여 공간에서 오브제 요소가 단순히 장식적인 효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나 시기를 반영하는 건축공간요소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표 8> 색채(color) 사례분석표

색채 (color)								
이미지
	Gilardi House		Barragan House		San Cristobal House			
이미지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경적	
표현특성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친숙성	부유성	투명성
	●	◎	◎	◎	X	○	○	X

멕시코는 색채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으로 식민지 시절 스페인으로부터 유입되어 잔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또한 멕시코 지역처럼 빛의 고도가 높아 빛이 강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원색적 색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역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연과의 조화로써 색채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위에 이미지 정리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꽃을 피우는 나무와 벽체의 색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꽃이 피거나 피지 않는 계절에는 벽에 칠해진 색을 통해 나무와의 관계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꽃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바닥에 떨어진 꽃잎으로 인해 물든 바닥이 벽체의 색과 연속적으로 어우러진 느낌을 주어 화장

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렇듯 계절의 시간 변화를 공간에 담아 느낄 수 있도록 색채를 사용하였다.

<표 9> 물(water) 사례분석표

		물 (water)							
이 미 지
		Barragan House	San Cristobal House	Gilardi House					
이 미 지
	정리								
표 현 특 성		장소적	시간적		일상적	환경적			
		지역성	역사성	가변성	연속성	반복성	진숙성	부유성	투명성
		◎	X	●	●	◎	◎	◎	●

無	小	多
X	○	◎
		●
		●

바라간 공간에서의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물이 아닌 새로운 물이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로 시간적 표현 특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물은 계속 연속되어 흐르기 때문에 시간성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다른 건축공간요소인 재료나 색채와 같은 다른 건축공간요소들과 관계를 맺어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여 신비스럽고 투명한 환영적 공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4.2. 종합 분석

앞선 분석을 빛의 표현특성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0> 종합 분석표

종합 분석			루이스 바라칸의 빛을 다루는 건축공간요소					
			구조적			비구조적		
			벽	창	개구부	오브제	색채	물
빛의 표현 특성	장소적	지역성	●	●	○	X	●	◎
		역사성	◎	◎	○	X	●	X
	시간적	가변성	●	●	◎	●	◎	●
		연속성	◎	◎	◎	◎	●	●
	일상적	반복성	X	○	X	◎	X	●
		친숙성	○	○	○	◎	○	◎
	환영적	부유성	X	X	●	●	○	◎
		투명성	X	X	X	◎	X	●

無

小

多

X

○

◎

●

●

첫 번째, 빛의 장소적 표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공간요소로는 벽, 창문, 색채로 역사성보다 지역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바라간이 멕시코의

지형이나 기후, 계절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하며 특히, 벽이나 창문은 그의 건축에서 빛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구조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색채의 경우, 자연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장소적 지역성과 스페인의 식민지로 인해 원색적 색채의 도입했다는 역사성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빛의 시간적 표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공간요소로는 벽, 창문, 개구부, 오브제, 색채, 물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공간요소에서 시간적 가변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태양의 일주운동에 의해 빛과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적 요소는 공간의 다양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간적 연속성에 있어서 바라간은 색채의 경우, 나무 꽃의 색을 벽에 색채를 통일함으로써 배경이 되는 벽이 피어있는 꽃의 색을 강조하기도 하고 떨어진 꽃잎에 의해 물든 바닥과 벽의 색채가 연속되어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기도 하며, 피지 않은 꽃을 벽의 색채를 통해 연상할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물은 움직이는 요소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속되어 흐르며 시간적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그가 빛을 다루는 요소 대부분에 나타나는 시간성은 그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표현했던 하나의 요소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 빛의 일상적 표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공간요소는 오브제와 물이다. 이것은 앞선 장소적, 시간적 표현 요소보다 약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약하게나마 물, 창, 오브제의 요소에서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빛의 환영적 표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공간요소는 개구부와 오브제, 물이다. 환영적 측면에서 개구부와 오브제는 부유성을, 물은 투명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바라간은 개구부를 이용하여 오브제적 종교 공간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강렬한 빛에 의해 탈공간화 되어져 마치 공간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오브제는 공간에 차단된 빛을 내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해주며, 반사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빛을 분산시켜 공간에 부유성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물은 재료, 색채와 같은 다른 건축공간요소와 결합하여 환영적 공간을 나타내기도 했다.

5. 결론

지금까지 루이스 바라간 건축의 빛과 건축공간요소의 상관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선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바라간의 건축에서 빛은 구조적/비구조적인 요소인 벽, 창문, 개구부, 오브제, 색채, 물과 같은 건

축공간요소를 통해서 건축의 일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축화 된 바라간의 빛은 장소적이고 시간적이며 일상적이고 환영적인 경험의 총체가 건축 공간 속에서 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가지는 것이 어찌면 빛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일 것이다. 아주 작은 농담(濃淡)의 차이 또는 보는 사람의 기분의 차이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는 건축 공간 안에서 무수히 변화하는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게 된다. 즉, 건축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빛은 결국에는 건축 공간 자체를 다르게 지각하게 만들고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루이스 칸은 건축 구조는 빛 속에서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루이스 바라간 건축에서의 빛 또한 공간과 함께 태어나고 변화한다. 바라간의 건축 공간 안에 담기는 다양한 빛은 결국에는 그 빛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지각되고 인식되는 건축공간을 만들어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루이스 칸이나 루이스 바라간과 같이 빛을 공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해왔던 근대건축의 빛에 대한 접근법과는 달리 최근의 건축에서는 빛을 수단적 장치로 전락시켜서 소비하는 경향이 부각됨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건축의 빛 사용 추세에서 본 연구는 루이스 바라간을 통해서 건축 공간과 빛이 맺어야 하는 본질적 관계를 재고해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족하나마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건축공간요소와의 관계로 축소해서 빛과 건축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건축과 빛의 근원적인 관계성 고찰을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John Lobell, 침묵과 빛, Between Silence and Light, 김경준 역, Spacetime, 2005.9
2. Peter Zumthor, 건축을 생각하다, THINKING ARCHITECTURE, 장택수 역, 나무생각, 2013.10
3. 김원, 건축은 예술인가, 열화당, 2007.12
4. 다니자키 준이치로, 음예공간 예찬, 고운기 역, 발언, 1997.5
5. 송영주·이영수,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1호, 2001.6
6. 이은미, 현대 건축공간에 있어 빛의 표현특성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3
7. 임재령, 스티븐 홀의 건축에 나타난 빛의 유입에 따른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0
8. 한지애·김수미·심우갑, 정서구현으로 본 루이스 바라간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2호, 2011.12
9.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1147800>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7689&cid=3001&categoryId=3027>
11. <http://www.barragan-foundation.org/>

[논문접수 : 2014 04. 30]

[1차 심사 : 2014. 05. 26]

[2차 심사 : 2014. 06. 03]

[게재확정 : 2014. 06. 13]